도시재생 시대의 퍼블릭 디자인

- urban design perspective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구경북권 순회포럼, 김천 12-10-31



전 제

인 식

논 의

지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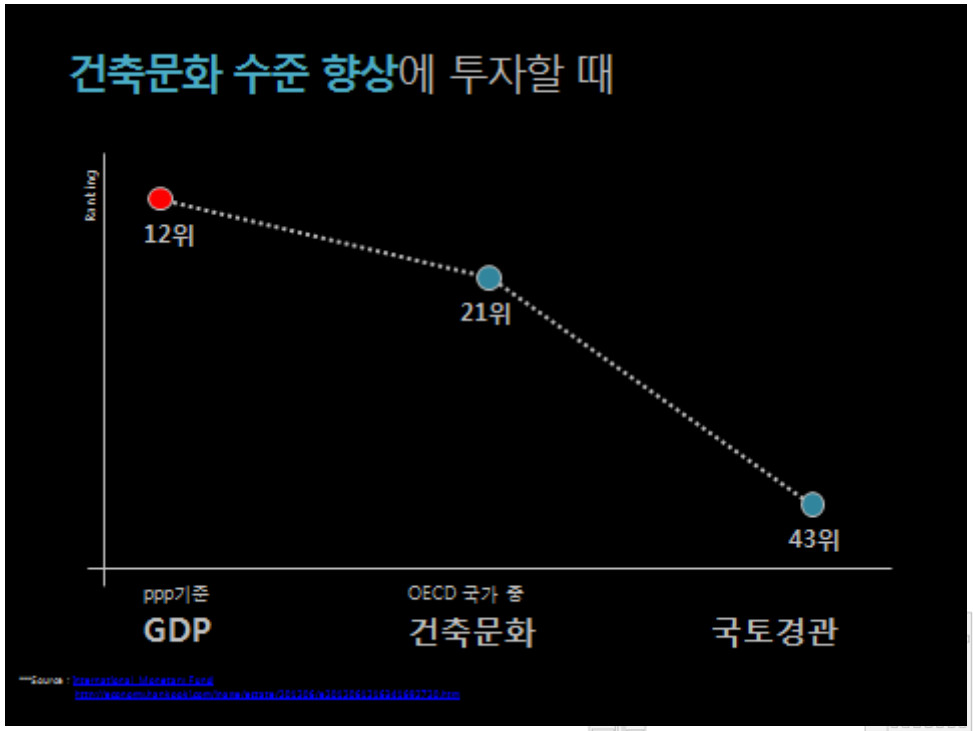


전제 논의

• **산업화 사회, 지난 한 세대의 도시화**

-과도한 도시화(Excessive Urbanization)
-과잉 도시화(Over-Urbanization)
-과열 도시화(Hyper-urbanization)

〈 건축문화와 국토경관의 수준, OECD/국건위〉



-양적 성장의 GDP 2만 달러 시대
-3만 달러 진입, 질적 변화가 절실

-건축기본법과 경관법 등이 제정
-법제도 틀로는 한계

• 도시쇠퇴의 가시화

-원인 : 급속한 도시화와 과잉개발의 반작용, 수도권 집중의 양극화 등
-전반적 도시쇠퇴 : 목포, 군산, 마산 등 중규모 도시
-원도심 등 지역적 도시쇠퇴 : 부산, 대구, 인천 등 대규모 도시,
-주요 대상지 : 오래된 도심과 주거근린, 전통상업지구 등

• 쇠퇴의 원인

-내생적 요인 : 생노병사의 유기체적 속성, 물적 쇠퇴지역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
신시가지 조성과 혁신도시 등 인접지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압출
-왜생적 요인 : 수도권 집중 등 불균형개발에 의한 지역경제의 상대적 위축
주거양식과 생활양식의 급속한 변화와 전통상업지구 쇠퇴

• 현재의 대안 수법

-도시재생 : 재건축/재개발/뉴타운, 건설자본과 부동산시장에 의존
-공공디자인 : 노후주거지의 공공벽화, 그린파킹 등에서 각종 마을만들기

• **도시**

-도시라는 文明 : 생노병사의 유기체
-생성과 변화, 재생이라는 순환의 싸이클

-공간경영의 최근 키워드 : 재생과 공공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가?

• **패러다임 변화 : Smart Growth & Smart Decline**

-팽창과 수축, 성장과 쇠퇴

-저성장 시대 : 지역 내수 기반 강화가 중요
-도시/지역 경쟁력 시대, 지역경쟁력 = 국가경쟁력
-지역역량강화 : 지방정부, 주민, 전문가집단

-거버넌스 :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의 전제
-키워드 : 공동체, 환경, 생태, 문화,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

• 도시재생법 입법 추진 중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 폐기, 19대 국회 제정 추진 현재 계류중
-목적 : 공공역할 강화(전면철거/수익성 위주의 기존 제도 한계 극복)
소프트웨어적 지원 강화(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재생 유도)

-내용 : 도시경제기반 재생(쇠퇴 도심 또는 산업집적지)
근린재생(쇠퇴하는 주거근린의 정주환경과 생활여건의 복합개선)

• 도시설계 또는 도시건축적 관점에서의 현재의 상황

-제도적 측면 : 도시설계(1980), 상세계획(1991), 지구단위계획(2002) 도입
당시의 기대와 고민, 문제점들이 되풀이

-도시재생은, 내용으로 도시계획적 스케일과 프로세스로,
업역으로 여전히 엔지니어링써비스를 기반으로

-공공디자인은, 환경디자인적 스케일과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행정적 목적, 다양한 형태/수법/주체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

인식

• 기본인식 :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관계에 대한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의 개발시대에 불가피했던 결과물이나 부작용에 대한 치유적 처방

-어떤 면에서 프레임과 디테일로서 구조적, 전일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나

-상호교차, 접목되지 못한 채 개발패러다임의 다른 버전으로 각개 진행

-퍼블릭디자인은 도시재생의 프레임과 디테일을 접합시켜줄 수 있는 Glueware

-도시재생의 PUBIC FACE가 퍼블릭디자인의 영역
-퍼블릭디자인 : 공공디자인의 관점과 영역의 확장

-도시재생은 퍼블릭디자인 관점과 실행이 추가
-퍼블릭디자인은 도시설계 차원의 재생적 관점이 추가되어야



▪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과 그 진단

• **개념**

-글로벌 체제에서 도시가 경쟁과 삶의 질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도시활력의 회복,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안 개념

-경험해 온 고유한 역사나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한 대안과 처방
-중층적이고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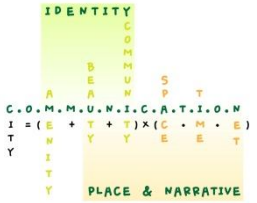
• 현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과 같은 물리적 대안형 솔류션
-다양한 방식의 마을만들기나 공동체사업

-외형적 성장이 삶터의 안정과 성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공리주의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공공이 주도한 채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획일적 처방





간판의 문제인가? vs 건물의 문제인가?

중동 신시가지, 간판이 정비된다면 좋은 소통은 가능한가?

파사드가 없는 근생건물에 대한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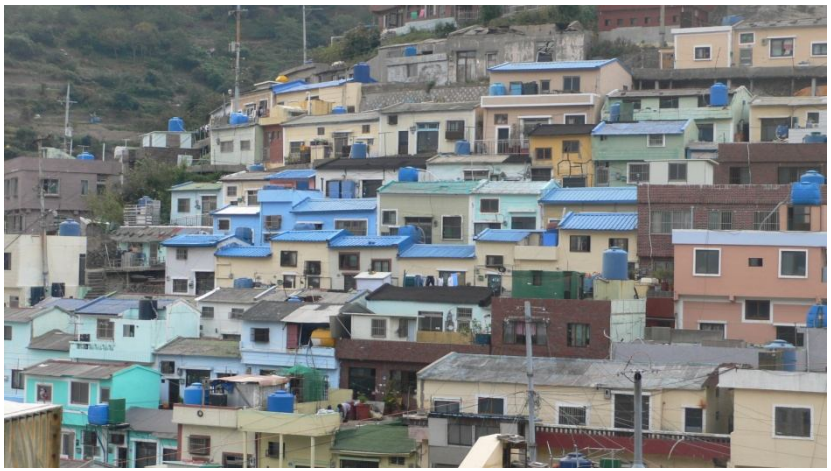








- 단독주택 리모델링 : 노후불량주거지 - 아미동과 태극도마을 vs 공공미술








Digital Camera
245-8545
www.bcoincamera.com
K2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의 산역사
문화와 예술의 중심 광복로!
광복로와 동성로의
오와와 발전을!
부산은 광복로!
의왕시는
문화의 거리
광복로의 옛 명성인의 거리
광복로와 더불어 보람찬 인생을


HEAD
스프리스
광복로67번길
Gwangbok-ro 67beon-gil
파크랜드
OKoutdoor.com
COMPAGNA
Kappa


JILLSTUART
2F
1F
JILL
B1F
OUTLET


주커피 ZOO COFFEE






부평 문화의 거리
명신당
방성우 신경과
포크


R.ATHLETIC
THE NORTH FACE


이곳은 절대금연 지역입니다
24시간 방범 CCTV 작동중
삼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공중화장실


2011 인천광역시 시대표 청소년문화존
HATS ON

• **진단-1 :‘과도한 도시재생’과 ‘연출적 공공디자인’ 수요의 지속적 발생**

-산업화 시대의 압축성장과, 과잉 경쟁과 경제 중시의 사회 분위기
-도시화의 짧은 경험과, 취약한 도시조직과 공간문화, 라이프스타일

진단-2 : 인식과 처방의 문제

-삶터와 삶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미흡 : 과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기본적 통찰 부족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도시문제들을 ‘경제와 일자리’의 문제로 환원 :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사회/문화/경제적 수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개발과 성장이라는 전통적 발전론의 연장선에서 도시재생이 전개

-재생의 악순환 우려 : 공간환경 관리의 체계성과 구체적 질을 담보하지 못함

-단견적 응급처방의 중복/중첩

‘기린’ : 아무리 목을 빼도 들판 너머를 보지 못하는
‘독수리’ : 전체를 조감하는

• 우리 시대의 도시재생의 역할

-재생은 최종 솔류션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요인들이 어울려 스스로 작동해 갈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일

-자본주의 도시의 개발주의 논리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 개발 논리,
-과학 만능주의와 생태주의,
-기능주의와 심미주의 간의 갈등을 해소해내는 장치/그릇

• 다양한 실험들은 가능한가?

-뉴어바니즘, 압축도시, 성장관리, 스마트 또는 유비쿼터스 시티, 친환경녹색도시 등과 같은 아젠다에서부터,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이나 역사문화보전재생, 마을만들기 등과 같은 대안적 프로그램들

• 개발시대의 관행을 극복하지 못한 개념과 수법의 벤치마킹

-공간의 양극화를 조장
-공간의 과잉조성으로 인한 과소비
-공간의 조성과 이용 간의 괴리 심화

논의

• 재논의(再論議) 되어야 할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의 연장선상에 놓인 물리적 재정비 수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다양한 젠트리피케이션 수단으로 분화, 오용
-법제도적 정의나 계획론적 개념에 충실하기 어려운 도시 현실

• 새로운 담론

-산업화 과정의 부작용과 상처들을 치유해가면서도,
-글로벌 경쟁과 탈근대 지향의 전환기에서 공간과 장소의 지속가능한 재구조화
-지역의 內在的 自生性과 地域力量强化을 통합적으로 드러내야

-'자생 도시재생' vs. '제도 도시재생'과 대비

- **재생 패러다임의 전환 : '자생 도시재생'**

-도시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하려는 공간적·문화적 기획
-무한경쟁의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지역 경제와 악화된 공간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에 차분히 대응해가기 위한 실천적 전략

-BEYOND '재생' : 재생 없는 재생을 위한
사후의 증상 대응적 대응보다는 사전의 체질개선적 적응에 가치



▪ 도시재생과 퍼블릭디자인의 과제 논의

• 도시재생의 3가지 국면과 퍼블릭 디자인

재생의 3가지 국면 : 환경목표 관련
-하나, 상업화된 기능적 도시공간의 공공성 회복
-둘, 삶터의 안정화 : 생활근린의 재생
-셋, 도시경제기반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퍼블릭디자인은 3가지 국면이 중첩되는 도시맥락 속에서
공간적 활력과 지역의 장소적 매력을 유지시켜가는 과정”

• 하나, 공공성 논의

-효율/기능 위주로 재편되어버린 산업적 도시공간들을 시민주체의 공공공간으로
-도시공간의 민주화를 실천해가는 과정을 넘어 공동체성과 문화성 논의로서

• 둘, 생활근린의 재생 논의

-‘통치와 효율의 기능 공간’을 ‘인간 주체의 생태 공간’으로 전환해
-진정한 도시재생이란 주변의 일상을 따뜻하게 바꾸어주는 작은 친절함에서 비롯
-주변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미래‘, ’작지만 큰‘ 일종의 형용모순의 지혜들

• 셋, 도시경제 기반 논의

-외형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도심 토지이용의 재구조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의 영남권 사례 등 :

• 영주시 :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공공건축, 공공공간, 장소만들기
-각종 관련 사업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통한 지역성 창출

• 대구광역시
-민간 차원의 읍성경관 복원 등
-시 차원의 통합적 지원, 디자인본부

• 부산광역시
-광복로 가로경관개선사업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북항재개발과 원도심재활성화

• 보스톤 등
-Big-Dig에서 Downtown Crossing
-도시스케일의 재생계획에 디자인 콘셉이 녹아있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도시재생 개념이 전제된

지향

▪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향

• 도시의 본질적 속성

-도시는 현재라는 순간을 살아가는 동시에,
-다양한 시대사조가 누적되는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있는 유기체

-때로는 논리보다는 우연이,
-기획보다는 자생이,
-스펙터클보다는 일상이 힘을 발휘
-과학적 상상력과 체험적 직관력을 발휘

• 극복되어야 할 과제

-3가지 국면을 작동시키는 것이 '법제도'이지만,
-현실과 법제도 간에 존재하는 Time-Lag은 불가피
-결과적으로 장애로 작동
-법과 제도의 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어야



• 도시재생을 둘러싼 삶터적 조건

전제 : 미래 지향의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에 대해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틀이나 솔류션을 제시

-첫째, 자본과 권력, 그리고 법제도
-둘째, 인간과 역사문화, 그리고 생활문화(관습, 규범, 정서, 공동체)
-셋째, 자연과 건조환경, 그리고 공간환경시스템

• 우리 도시사회에서는 "자본과 권력, 법제도"가 최우선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한계,
-거기에 편승하는 정치행정의 포퓰리즘적 행태,
-건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용자 의식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형식논리를 앞세우는 법제도에 휘둘릴 수밖에

"법제도가 앞서가면서,
행정과 전문가 집단이 허둥지둥 뒤따라가는 형국에,
뒷짐지고 있는 주민들"

• 21세기 공간경영의 특징 : 재생과 공공디자인 관련

-삶터를 삶의 관점/메카니즘에서 전일적/통합적으로 다루어야
-공통 키워드 : 공간환경의 질, 지역성, 선택의 다양성, 일상 경제, 생태, 문화, 커뮤니티
-도시건축과 문화 : 모두가 문화를 앞세우지만, 만들고 가꾸어가는 방법?
법제도의 족쇄에 이어 심지어는 문화라는 틀에 끼워넣으려

로마신화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공급자, 코디네이터로서의 행정

-아직 우리 현실은 행정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한계
-법과 제도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행정
-행정이 법제도의 족쇄를 극복할 수 있기 위한 분위기와 대안 마련

행정의 거듭나기

인지부조화와 합리화의 관행 극복

: 아전인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잡종적 지식인

: 복잡한 기술시스템과 책임이 실종된 관료제가 결합해 낳은 것이 지금의 '위험사회'를 극복

열린 리더쉽의 창의 행정

: 법제도의 유연한 운영, 절차적 책임보다는 내용 중시

■ 도시행정의 핵심 가치, 싱가폴 URA : ***SPRIT***

Service	봉사
Passion	정렬
Integrity	성실
Respect	존경
Innovation	혁신
Teamwork	협력

• 미래지향의 도시재생과 퍼블릭디자인 실천을 위한 인식과 전제

-첫째, 도시 삶의 현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려는 태도
최고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로 손꼽히는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
“미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둘째, 입지 잠재력과 자산적 가치를 복원하기 위한 전일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셋째, 재생을 포함한 도시관리를 사후 처방에서 사전 예방의 현재진행형 개념으로 전환
재생의 진정성은 지속가능한 ‘착한 되살림‘으로의 체질 개선
새로운 것으로 바꿔 끼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 공간계획틀의 재편(안)

-첫째, (가)지역재생마스타플랜 수립과 퍼블릭디자인 수립 지침, 공공공간/공공건축 등

-둘째, 도시재생 관련 계획틀 전반에 도시설계 프로그램 및 전략 강화

-셋째, 관련 공공계획과의 유기적 연동 체계 구축

-넷째, 공간 관련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 담보

-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지역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밀착 커뮤니티**

"성공과 정착의 전제"
-공공의 리더쉽 : 행정의 파트너쉽과 창의적 리더쉽, 법제도의 유연적 운용 의지
-커뮤니티의 참여 : '공중(公衆)으로서의 시민'
-지역 민간기업의 활력 활용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들"
-'코뮤니티 디자인' : 시민사회의 공동체 vs 전통 사회의 공동체
-자력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 **'지금 "여기에서, 함께(Now Here, Together)" 가꾸어가는**

공급자인 행정가와 전문가 집단, 소비자인 시민과 주민의 경계를 뛰어넘어
융합의 솔루션을 찾아가야 : 개별 처방의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context)
도시에 대한 기계론적 대응을 유기체적 적응으로 우리의 사고관을 바꾸는 일에서